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2022년 9월11일(다해)

4040 Nelthorpe St. Victoria BC V8X 2A1

제13권 666호

2022년 <사목목표>-절제의 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주일 미사 : 빅토리아: 일요일 3PM 나나이모: 토요일 4PM	주임신부 : 유영진 로베르토 ☎ 778-966-3689 카카오톡 ID-ryu0758
평일 미사 : 수요일 7:30PM(빅-성당) 목요일 10:30AM(빅-성당)	사목회장 : 변영호 리처드 ☎ 250-893-3355 성당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hsaem
교해 성사 : 미사 30분전	주소 : 6234 Spartan Rd, Nanaimo, BC V9T 2N9

사목목표 실천을 위한 우리의 다짐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닌, “우리 행동을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유”를 뜻합니다.

절제를 통해 깊은 자유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 나와 이웃과의 관계:	▣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거룩한 마음으로 열심히 미사 봉헌하기 - 주일 미사 빠지지 않기. - 평일 미사 참석해 보기.	절제와 절약으로 나눔의 삶 실천하기 - 절제를 통해 이웃에게 나눔 실천하기. - 타인에 대한 험담을 절제하고 칭찬과 사랑의 말 나누기. - 쉬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하느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칭찬해보기. - 음식물을 버리지 않기. - 일주일에 한번 휴대폰 및 TV시청을 30분 줄이고 묵주기도 바치기.

2022년 9월 11일 [(백) 한가위-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살아온 조상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읍시다. 자신을 위해서만 재화를 모으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전례 순서>

- ▣ 입당송: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옵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 ▣ 입당 성가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 ▣ 제1독서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22-24.26ㄱㄴㄷ
- ▣ 화답송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 ▣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4,13-16

▣ 복음 환호송



알 렐 루 야 알 - 렐 루 야 알 렐 - 루 - 야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알렐루야.

▣ 복음 르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5-21

▣ 봉헌 성가 510(주님께 올리는 기도)

▣ 영성체송 :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 성체성가 188 (천사의 양식)

▣ 파견성가 451 (주께 나아가리다)

▣ 오늘의 묵상

가족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과 사랑을 나누는 한가위에, 교회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노고를 축복하시고 손수 풍성한 결실을 내주셨음에 감사드리며(제1독서 참조), 세상에서 고생한 의인들을 그분께서 수확하여 거두시는 심판의 때를 선포합니다(제2독서 참조). 오늘 복음은 그러한 하느님의 심판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삶에 관한 가르침(루카 12,1—13,9 참조)입니다.

부자의 속마음에는 유독 '모으다'(17.18절)와 '쌓아 두다'(19절) 같은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자신이 거둔 소출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감사의 마음은커녕, 그 재산에 기대어 안심하고 즐길 생각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느님도, 나눔을 실천할 이웃도 없습니다. 더 벌어서 계속 더 큰 공간을 짓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린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좀먹는 가장 큰 유혹이며 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자를 "어리석은 자",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꾸짖으십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줄지 않는 보물을 쌓으라고 자주 말하면서(루카 12,33; 16,9; 18,22 참조), 그 방법으로 이웃에 대한 자선을 제시합니다. 한편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 드리는 이,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신다"(19,17). 모을 줄만 알고 통장에 찍힌 금액에서 만족과 안정을 찾는 세속적인 부자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눔과 자선을 통하여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하느님 나라의 부자로 살아갑시다.

(강수원 베드로 신부)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반주
9월 11일 연중 제24주일 (한가위)	빅토리아	변준섭 사도요한	한동호 아브라함	한호진, 한우진	한예진 수산나
	나나이모	테레사 하트	김미나 사라	박지성	이유빈 스텔라
9월 18일 연중 제25주일	빅토리아			심재현, 김대현	한예진 수산나
	나나이모	조계숙 체칠리아	정영애 아네스	박지성	이유빈 스텔라
성김대건안드레아 사제와 성정하상바오로와 동료순교자들대축일					

▶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신청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성인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 유아세례- 수시 접수

▶ 성인세례식-수시 접수

신청서 접수: 빅토리아-강보녀 모니카
나나이모-김미나 사라

▶ 오늘 우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 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조상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상님들
을 위한 암동 위령 미사를 봉헌 했습니다.

고우분들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명절 축하드립니다.

미사 후에 parish hall에서 친교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하여 동요 '달달 무슨 달'을 불러 주신 주일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미사 안내

다음주(18일)는 연중 제24주일이지만, 9월 20일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인 관계로 18일 주일 미사는 대축일 미사로 봉헌합니다.

▶ 어린이 첫영성체 및 예비자 교리-9월

2022년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세례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9월부터 실시 합니다.

예비신자 초대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일 학교 시작

주일 미사 후 4시 10분부터 parish hall에서 있습니다.

▶ 함께 기도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본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통한 건강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잊지 마세요!!!

-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후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을
저희 공동체도 함께 지향을 가지고 봉헌합니다.
(주모경을 바친 후에 다음의 기도를 바쳐주세요.)
“평화의 모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100만단 목주기도를 봉헌합니다.

빅토리아 한인공동체와 빅토리아 교구의 발전과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목주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 591,299단

이번 주 : 247단 현재 : 592,137단

▶ 레지오 회합

천사들의 모후 Pr-매주 월요일 8PM

파티마의 모후 Pr-매주 화요일 10:00AM

우리들의 정성 (2022년 9월 4일)

빅토리아 봉헌금	\$ 304
빅토리아 교무금(5세대)	\$ 670
나나이모 봉헌금	\$ 300
나나이모 교무금(2세대)	\$ 200
봉헌금 소계	\$ 1,474
감사헌금-	\$
매일 미사 판매-	\$
합 계	\$ 1,474

본당 e-transfer 계정 안내

koreancommunity@rcdvictoria.org

▶ 교무금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은혜를 간청하면서, 교회를 통해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천주교회법규 제2장 5절 157항-

▶ 기도문 안내

9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찬미받으소서」<개정판>)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빅토리아
교우 Business 안내



개인주택 레노베이션 전문
이석태 요셉
250-889-2500

HARBORD
INSURANCE

자동차 / 주택 / 상업
/ 여행자 보험
문창주 애릭
ericm@harbordinsurance.com
150-805 Cloverdale, Victoria
250-889-5650
harbordinsurance.com



PRIMERICA

RESP / RRSP / TFSA 펀드
생명, 엔탈, 여행자 보험
변영호 리처드
www.primerica.com/richardbyeon
250-893-3355

J J Acupuncture & Massage Clinic

각종 통증 완벽판리
침, 경락마사지, 부항
콤보치료
JJ Kim 카타리나
250-884-8182



스시 아일랜드
Japanese restaurant
사시미. 롤. 우동. 라멘
박성배, 정혜숙 크리스티나
#105-1633 hillside ave victoria
778-433-8488



Korean Fried Chicken
심환규 가브리엘, 김희진 가브리엘라
2224 Quadra St, Victoria
250-590-6491

WINKS MARKET

한국 식품점
현대 택배
이동석 안토니오
250-885-9497
250-360-2838



Sweet Garden Cafe
딸기생크림케이크
롤케이크/쿠키
박효진 마리아
카드: Victoria 0903
778-679-9464

빅토리아
유현자 부동산

밴쿠버 아일랜드 모든지역
(집, 비즈니스, 상가건물)
유현자 글라라
YouTube: cuvictoria24
250-858-6775



박찬일 스테파노
3601 Shelbourne St.
Victoria, BC
250-721-2420
250-514-1831 (Cell)
squeakyslaundromat@gmail.com
www.squeakyslaundromat.com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나나이모
교우 Business 안내

SERIOUS COFFEE

이순재 요셉
이유빈 스텔라
Vancouver Island conference center (VICC)
#300-60 Commercial st. Nanaimo
250-591-1065

Dolphin 모텔



권 베로니카
1190 Pacific Rim Hwy, Tofino
250-725-3377 (토피노)

Umai Sushi

일식 레스토랑
이효열 오릴리아
Nanaimo North Town Centre
4575 Uplands Dr, Nanaimo
250-585-8900 (나나이모)

Nana Sushi

스시, 롤, 라멘
김시나 드보라, 김시령 아네스,
김대우 시몬
14 Victoria Crescent, Nanaimo
250-591-0755 (나나이모)

이 광고란은 여러분의 도네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사라, 604-219-5113